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 학교 선정

전주공고·강호항공고·남원용성고·학산고 등 12곳 디지털 이해 교육·디지털 융합 활용 필수과제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사업 대상 학교로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학교는 전주공업고, 강호항공고, 남원용성고, 남원제일고, 덕암정보고, 아리공업고, 전북유니텍고, 전북하이텍고, 정읍제일고, 진경여자고, 진안공업고, 학산고 등이다. 이 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기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디

지탈 역량을 강화하고, 신입생 채용·취업률 제고 등 학교의 여건에 따른 자율적 목표달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의 자발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학교별 예산은 학교 특성 및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번 선정된 학교는 디지털 융합

역량을 가진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이해 교육과 디지털 융합 활용 수업을 필수과제로 진행하고, 자율과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 운영된다. 또 디지털 교육여건과 학생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조성 비도 지원된다. 도교육청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정된 학교들은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3일 열린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입학식 행사에서 신입생을 위해 인문대학 소속 남성 교수 8명으로 결성된 교수 중창단 '스윗 교수로우'가 직접 축하공연을 펼쳤다.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전주대 인문대학 이석 입학식 '눈길'

교수 중창단 '스윗교수로우'가 직접 축하공연

전주대학교 인문대학(학장 안정훈)은 지난 3일 열린 단과대학 입학식 행사에서 신입생을 위해 교수들이 직접 축하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인문대학 소속 남성 교수 8명으로 결성된 교수 중창단 '스윗 교수로우'가 준비했다. 이는 대학 생활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행사인 입학식을 통해 학생들과 교수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벤트다. 총장 환영사와 총동문회장의 축하 영상에 이어 진행된 이날 축하 공

연에서 교수 중창단은 두 곡을 준비했다. 첫 곡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잘 알려진 노래 '정주남요'를 개사했다. 신입생들을 격려했고 환영하는 메시지와 함께, 학생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리에 교수들이 함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인 '간디대학교'의 교가로 잘 알려진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배움의 의미, 가르침의 의미와 함께 미래를 꿈꿔 나가야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를 담고 있다. 이 공연을 본 신입생들은 "대학교에서 만나는 교수님은 근엄하고 진지한 분들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 선입견을 깨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정훈 인문대학장은 "교수님들께서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준비와 연습에 임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더욱 더 많은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실제로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뭐든 해보자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길 바라고, 교수님들이 앞에서 좋은 멘토가 되겠다"고 신입생들을 응원했다. /장은성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162명 신규 채용

도교육청, 교육행정직 등 4월 10~14일 원서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은 총 162명으로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101명(일반 92명·장애 6명·저소득층 3명), 전산직 7명, 사서직 5명, 공업직(일반기계·일반전기) 4명, 식품위생직 3명, 시설직(일반토목·건축) 11명, 기록연구직 2명, 시설관리직 11명, 운전직 18명 등이다. 이 중 시설직(건축) 3명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기록연구직은 20세 이상)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이다.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돼 있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다만 등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4월 10일~14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educruit.je.go.kr>) 교직원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채용 바로가기)을 통해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10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7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시험은 8월 4일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8월 21일 발표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e.go.kr>) 교육소식(시험/채용/구직) 지방공무원 시험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입학식

3년 만에 대면 개최

전주기전대(총장 조희천)는 2023학년도 제9회 입학식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통해 입학허가 선언 및 신입생 선서, 학사 안내, 축하 공연, SNS 이벤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면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들을 위해 본교 교직원들이 극장 광고를 패러디해 제작한 환영 영상과 뉴진스의 하이브이를 개사한 교원 축하공연은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신입생은 대표해 동물보건과 이민정, 허브조경과 강영호, 글로벌산업인재과 황희정, 유아교육과 심화과정 장서는 학생이 선서를 했다. 조희천 총장은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 펼쳐질 대학 생활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기회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취업 동기 부여 및 학습 역량을 강화해 현장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초중고생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하세요

도교육청, 1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현금 아닌 바우처로 지원... 상시 신청 가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에 나섰다. 지난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시 신청도 가능하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함이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는 만큼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바우처(e-voucher.kosaf.go.kr)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 수급자인 경우 오는 20일까지 사전접수가 가능하며, 정식 운영 기간인 3월 29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기존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 대상이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에 따라 41만5,000원~65만4,000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지난 3일 5동 1층에서 2023학년도 러닝 헬퍼(Learning Helper) 발대식 및 리더십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호원대, '러닝 헬퍼' 발대식... 리더십 특강도 진행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지난 3일 5동 1층에서 2023학년도 러닝 헬퍼(Learning Helper) 발대식 및 리더십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Learning Helper 프로그램은 2017학년도부터 진행해 온 프로그램으로, 교수가 아닌 학생이 '학습 리더'가 돼 상호간 학습을 지원하는 호원대 고유의 프로그램이다. 이에 2023학년도 Learning Helper는 전체 학부(과)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38명의 학생들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학습 리더가 되어 3월부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신입생 특강, 재학생 특강, 또래 학습상담, 리더십 캠프 등의 학습 지원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발대식에 참여한 한 학생은 "러닝 헬퍼로 선발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협력학습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우들에게 학습 노하우를 전달해 즐거운 학습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지난 3일 대학 본관 5층 시청각실에서 현대자동차 기술직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석대, 현대자동차 기술직 채용 설명회

청년 구직자 200여명 참석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지난 3일 대학 본관 5층 시청각실에서 현대자동차 기술직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구직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역 인력난과 청년실업, 일자리 미스 매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채용 설명회는 △진행형 체코포인트

채용설명 △기회 맞춤형 입사지원서 작성법 △자소서작성법 등 현장 및 관련 분야 취업 준비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승미 본부장은 "채용 설명회 이후 서류접수 기간 내 입사지원서 컨설팅을 병행해 구직자의 취업 자신감을 북돋아 줄 계획"이라며 "나아가 서류합격자에 대해서는 인·적성검사와 면접 컨설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7년 연속 선정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사증발급심사 등 지원절차 간소화 석박사과정 국적에 상관없이 전자비자 발급 가능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정원제한 없이 자율 선발도

국립군산대학교가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심사'를 통과해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 동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군산대학교는 교육국제화역량 우수대학으로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교육국제화역량(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인증제는 교육부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학생의 질 관리를 제도화해 전체 한국 대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인증 제도이다. 2017년 3월부터 인증을 취득한 군산대학교는 2022년 인증평가에서 필수지



표인 불법체류, 핵심역량지표인 국제화사업 계획 및 인프라, 학생선발 및 입학 적절성, 등록금부담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한국법령 이해교육, 학업·생활·진로 및 취업지원, 중도탈락률 유학생 상담률 공인언어능력, 만족도 등 13개 지표를 모두 충족함으로써 7년 연속 교육국제화 인증대학이 되었다. 군산대학교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군산대학교에 지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

서만으로 사증발급심사를 받는 등 지원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받게 되고, 석·박사과정 입학예정자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혜대학 선정 및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고, 교육부 공식 사이트를 통한 대학 홍보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아울러,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박시국 국제교류교육원장은 "군산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최근 5년간 2017년 유학생 수에 비해 유학생을 2.9배 이상 유치하였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2년에는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 수혜대학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과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산대의 교육국제화를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지역발전 견인에도 더욱 힘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